

제10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는 삶

이사야 12:1-6

이사야사역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유다에 쳐들어왔던 아하스 왕 당시의 전기사역과 앗수르가 유다를 침공했던 히스기야왕 당시의 후기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12장은 이사야의 전기 사역을 마무리짓는 의미있는 장이다.

12장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로 구성되어 있다.

①. 남은 자의 찬송은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된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은 잠간의 진노 뒤에 영원한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다.

시30:5을 읽고 잠간의 진노를 통해 영원한 은총을 입은 자가 누리는 기쁨에 대해 묵상해보자.

“그의 노여움은 잠간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였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30:5)

②. 이어 남은 자들은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라고 외치는데 이 고백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 하셨지만 그 심판을 구원을 위한 심판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순히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이다.

시27:1, 38:22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이 되신다는 고백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③. 이사야는 3절에서 남은 자에게 주어진 구원을 매일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기쁨에 비유하면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네 가지 명령을 제시하고 있다.

4절-6절을 읽고 이사야가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선포하는 네 가지 명령에 대해 묵상해보자.

- ① 여호와께 감사하라.
- ② 그의 이름을 부르라.
- ③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국에 알려라.
- ④ 그의 이름을 높여라.

④. 다음 칼럼을 읽고 3절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 길는 삶에 대해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자.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체내에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리며 이 목마름이 극에 달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

선지자들은 물이 귀한 이스라엘의 여건을 감안하여 물을 자주 구원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2:13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생수의 근원이라고 선포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쉬운성경)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유다의 두 가지 죄 중 첫 번째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불신앙의 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겪는 결핍과 불안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정욕의 죄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하는 모든 일을 악하게 보신다. 전도자는 전도서1:2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스스로 하는 모든 일은 그것이 선한 일이라도 "덧없음의 법"에 지배를 받아 결국 "무"가 되고 만다고 말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 언약은 남은 인생을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겠다는 약속이 전제된 언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살려는 죄로 피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참히 파괴했다.

언약백성 유다가 이처럼 끊임없이 언약을 파기하며 패역죄를 범하는 것은 사탄의 미혹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럼에도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전락한 것은 뱀의 유혹이 발단이다(창 3:1). 뱀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직접 유혹하지 않았다.

먼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동시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심어주었다(창 3:2-5).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먼저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죄는 나중이다(창 3:6). 욕망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약 1:15). 최초의 욕망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고, 최초의 죄는 불순종이고, 최초의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유를 빼앗아가며 이때 죄의 종으로 전락한다. 창조 당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는 자유가 아니다.

만일 인간이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다 소유하였다면 진정한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선의 자유만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을 받아들여 이 자유를 박탈당하게 된 것이다.

아담의 죄는 하나님과 분리라는 죽음의 결과를 가져왔다(롬 6:23).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은 불신앙(unbelief), 교만(hubris), 그리고 정욕(concupiscence)의 실존으로 살게 된다. "불신앙"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성향을 말하고 "교만"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끌어 올리려는 내면의 성향을 말하고, "정욕"은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한 삶의 결핍과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끌어당기고 축적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묵상의 규례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기쁨을 맛보며 임마누엘의 실존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실존을 극복하게 하신다.

말씀묵상을 통해 임마누엘의 기쁨을 맛보며 사는 삶이 바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는 언약백성의 삶이다. 이 때 신자는 불신앙, 교만, 정욕이라는 하나님과 분리된 실존에서 벗어나 언약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말씀묵상이라는 그물로 잡아야 할 펄펄 살아 뛰는 물고기는 임마누엘의 삶이다. 만약 우리가 매일 말씀묵상을 하면서 이런 물고기를 잡지 못한다면 매일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만 빈 그물만 들고 돌아오는 불쌍한 어부가 되고 만다.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를 뒤흔들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이 말씀을 단순히 하나의 지식적 원리나 교리로 묵상하면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결코 임마누엘의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